

목차

해외소식

- 04 **나마스페, 동게스와리**
마을 주민과 하나되던 날 | 김재령
- 08 **살라맛, 민다나오**
문구류 상자에 사랑을 싣고 | 배명숙
- 11 **썰리읍쑤어, 캄보디아**
책상 나르기가 즐거운 놀이로 | 박주선
- 14 **아빠까달, 인도네시아**
공사 시작한 가구가 17가구... | 임희성

국내소식

- 16 **함께 나누는 사랑**
북한 수해피해 함께 이겨나가요
'친구야, 밥먹자' 대북 지원 선적식 진행
- 20 **사람이 있는 풍경**
애광원 경주 나들이
- 24 **JTS가 만난 사람**
JTS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눔회원소식

- 26 **활동터 소식**
국내 • 인도 • 필리핀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스리랑카 • 아이티
- 32 **나눔회원 알림판**
새나눔회원 • 특별후원금 • 나눔저금통

심한 가뭄이 든 등게스와리

작년 모내기철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등게스와리 지역 대다수의 농민들은 논에다 모를 심지 못하고 불별더위에 지칠대로 지친 몸과 자신의 새까만 피부 색깔보다 더 타 버린 마음을 추스르며 올해 벼농사를 기약하였다. 작년에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후유증은 쌀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가난한 살림살이를 더 왜소하게 만들었다. 마을주민들은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올해



마을 주민과 하나되던 날

홍보관 신축공사와 콘크리트 타설



인도 JTS는 지난 7월부터 홍보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홍보관 안에 마을 사람들의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함께 짓기로 했다.

도 가뭄이 들었다.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가뭄이 계속되니 농사로 먹고 사는 농촌마을에 일거리가 없어졌다. 일하기가 싫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농번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는 도시로 돈 벌이를 찾아갔다.

홍보관 신축공사 시작

인도 JTS는 지난 7월부터 홍보관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수자타 아카데미가 개교한지 15년이 지났고, 병원에서 모자보건 및 결핵 퇴치 활동을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모로 불편 하였다.

이왕 홍보관을 지을 거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고자 홍보관 안에 마을 사람들의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함께 짓기로 했다.

구하기 힘든 노동자들

인도 JTS 건축부 기술자와 노동자가 주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노동자가 더 필요해서 마을에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몇 차례 공고를 해도 할아버지 몇 명을 제외하고는 홍보관 공사하는데 젊은이들이 오지 않았다. 마을에 건장한 청년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도시로 일하러 갔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공사기간을 약간 늘리고 있는 기술자들과 노동자가 함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일을 하다보면 그 일에

맞는 적당한 인원이 있다. 적당한 인원

이 적당한 일을 하면 공사 현장 분위기도 좋고, 일에 능률도 오르고, 사람들의 불만은 줄고 성취감은 올라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사가 즐겁고 신이 난다. 그런데 홍보관 공사는 노동자 수가 적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이 게을러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쌓이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노동강도가 세고 기술자들이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홍보관 천장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 마을주민 150여 명이 왔다.
공사경험 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믿음직한 일꾼이었다.



탕이 되니 홍보관 신축 공사도 탄력을 받아서 착착 진행되었다.

천장 콘크리트 타설이 고비

홍보관 신축 공사의 한 고비인 천장 콘크리트 타설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 같으면 콘크리트 차를 불러서 콘크리트

타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기 등게스와리는 모든 공사를 사람 손이

하다보니 콘크리트 타설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 천장 콘크리트 타설에는 최소한 100여명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루만에 끝내야 하는 조금은 어려운 공정이었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다. 건축부 식구들은 수자타 아카데미의 교사와 마을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했다. 마을의 상황이 안 좋아서 마을 주민들에게 요청을 해도 마을 주민들이 호응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서 마을지도자 회의 때 요청을 하니 우리의 우려와는 반대로 마을 지도자들은 “홍보관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매장도 짓는데, 우리가 한 번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선선히 답을 한다.

천장 콘크리트 타설 당일

드디어 홍보관 천장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이다. 마을 지도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오겠다고는 하였지만 별 기대는 하지 않고 건축부 식구들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공사를 하자고 했는데 8시가 넘어서자 마을 사람들

함부로 대한다고 불만이 쌓여갔다. 이렇게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의지하지 않고 반목을 하니 그나마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이직을 하게 되고, 중심기술자들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당을 많이 주는 남인도로 모두 가버렸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홍보관 준공식을 내년 1월에 하기로 했으니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일을 할 사람은 없고, 낙담하고 있을 즈음 노동자들이 자기 마을에서 젊은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어려운 공사 현장의 위기감이 그동안 중심 기술자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고 주변에서만 맴돌던 노동자들의 결속과 주인 의식을 불러왔다. 서로의 반목으로 시작된 위기가 지나가자 공사 현장은 희망과 열정과 힘이 넘쳐난다. 그리고 다양한 제안과 기발한 생각들이 넘쳐나게 된다.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이런 것이 바

마을주민들에게 “일당도 받지 않고 오늘 힘든 노동을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물으니 한참을 대답도 하지 않고 웃으신다.



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을 주민들 150여 명이 온 것이다. 물론 젊은이는 적고 대다수가 중년이고 노인들도 많이 왔고, 콘크리트 타설 경험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지만 너무나 믿음직한 일꾼이었다. 공사 경험이 없는 마을 주민들과 일을 하니 여러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모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해서인지 현장 분위기는 웃음이 넘쳐났다. “오늘 끝낼 수 있겠나?”라는 회의적 시각이 “오늘 끝낼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돌아서고, 모두 열심히 일을 하여서 우리는 예정 시간보다 훨씬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중심 기술자들이 빠져버린 건축부, 젊은이들이 빠진 마을, 하지만 이들은 고된 노동을 놀이로 승화시켰다. 힘든 노동을 함께 하면 육체적 피로는 있지

만, 놀이처럼 재미있고, 끝나면 보람도 생긴다. 일이 끝난 후 새참을 먹고 마을주민들에게 “일당도 받지 않고 오늘 힘든 노동을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라고 물으니 한참을 대답도 하지 않고 웃으신다. 그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어린 소년처럼 웃었다.

내 감정이 마을 주민들의 감정이고, 마을 주민들의 감정이 내 감정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날. 홍보관 천장 콘크리트 타설하던 날. ✿

글 김재령 | 인도 JTS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

문구류 상자에 사랑을 싣고

문구류 지원 프로젝트

“이것 보세요, 우리 학생이 이런 몽땅연필을 쓰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갈랑잇 학교에 문구류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너무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신 선생님은 어떤 학생의 몽땅연필을 보여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JTS에서는 1년에 한번씩 교실 건축을 지원한 학교에 연필, 공책, 볼펜, 연습장, 크레용과 스케치북 등 문구류를 지원하는데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문구류 지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용품 분배 전의 준비

학용품을 분배하기에 앞서 각 학교로부터 올해 등록한 학생의 학년, 이름, 성별이 기록된 리스트를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학생 리스트가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가가안테오로에 있는 대형 문구점에 학교별 학용품을 주문하고, 비맞지 않게 박스 포장까지 해서 준비가 다



“이것 보세요, 우리 학생이 이런 몽땅연필을 쓰고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되면 대금 지불 후 사무실로 옮겨옵니다.
학교 방문 일정에 대해 회의를 하고 방문 날짜가 잡히면 보통 하루에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참! 학교가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학용품 상자를 옮기는 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마을리더와 일정을 상의해서 방문 시 마을 주민들이 내려와서 학용품을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구류를 배분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직접 모든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합니다. 자~이제 가볼까요?

탈라각의 오버루킹 학교 방문

탈라각에 위치한 오버루킹을 방문하는 날.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머리에 이고, 또는 어깨에 메고 본격적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한참 수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문구류 상자를 교실 앞쪽에 배치합니다. 마을 리더와 주민들은 마치 마을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모두 모여서 학용품 나눠주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마을 리더, 선생님, 주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레 학용품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학용품을 기다렸을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자연스레 전해지는 것 같아 저도 덩달아 재빠르게 나눠주는데 동참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분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마을 리더 집에서 준비해주신 점심을 먹고,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 역시 마을 몇몇 청년들의 배웅을 받고 아랫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갑니다.

가가후만 학교를 찾으니...

조금은 아쉬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가가후만 학교에는 현지 활동가 두 명과 함께 리스트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산꼭대기 능선에 학교가 위치했는데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고, 오르고 오르니 그렇게 꼭대기에 이쁜 경치를 배경으로 가가후만 마을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만 운영되고 있었고, 마을리더와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마을 리더는 인근의 광산 일에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일하고 있기도 하고 신인민군 공산당들이 여전히 그를 (전 신인민군 공산당 사령관) 수색 중이라 마을을 자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정규교사들도 마을을 떠나게 되어서 기존에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7km 떨어져 있는 임파하농(가가후만의 아랫마을)이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아팠지만 가가후만 학생들이 69명이나 다니는 임파하농에 들려 그 학교 전체 학생 리스트도 받아서 돌아오고 며칠 후 문구류를 지원했습니다.

해외소식 _ 살라맛, 민다나오

올해 문구류 지원은 14개 학교 2,101명 학생에게 공책, 연필, 볼펜, 연습장 등의 학용품을 지원하게 되었다.



문구류 배분 후, 알라원 학교

알라원 학교로

또 다른 천국 알라원은 유일하게 차로 이동하지 않고 센터에서 걸어 갈 수 있는 곳(8.2km)입니다. 포근하게 자리잡고 있는 학교에 수줍게 웃어주는 아이들, 이들에게 공책과 연필을 나눠주는데 너무도 부끄럽게 받았고 그 모습이 참으로 기분 좋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한 덩치 큰 학생의 수줍은 미소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문구류 지원은 14개 학교 2,101명 학생에게 공책, 연필, 볼펜, 연습장 등의 학用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학생수는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반응도 조금씩 다르지만, 분배하는 시간만큼 저는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몇 박스에 달하는 학用品을 분배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아주 묵직하고 흐뭇했습니다. 문구류 상자에는 연필, 공책, 볼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 현지 활동가, 문구점 직원, 마을 주민, 한국에서 후원해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그 정성을 제가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

글 배명숙 | 민다나오 JTS

해외소식 _ 쫄리음쑤어,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10월은 참으로 바쁜 달이다.
농촌에선 수확하느라 일손이 부족하고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된다.

책상 나르기가 즐거운 놀이로

파촌툼 학교의 교실정리

오늘은 라타나끼리에 종일 비가 내린다. 주룩주룩 내리는 비는 캄보디아의 타지역에선 보기 힘들다. 요즈음 한창 농산물 수확기인데 이렇게 비가 오면 수확에 문제가 생긴다. 산악지역에서 재배한 벼는 손만 대어도 그 대가 부러져서 낫으로 벨 수가 없어 사람 손으로 일일이 나락을 훑는다. 이렇게 종일 비가 오면 나락이 다 떨어진다.

10월에 새학년 시작

캄보디아에서 10월은 참으로 바쁜 달이다. 농촌에선 수확하느라 일손이 부족하고 학교는 새 학년이 시작된다. 신입생들, 한 학급 진급하는 아이들이 모두 모여 선생님과 함께 여름방학 내내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베어내고 청소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 고등학생들은 반룽(라타나끼리 주 도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거리청소를 하기도 한다.

학생들과 함께한 교실정리

어제는 제이티에스도 덩달아 바빴다. 파촌툼 마을에서 방학동안 학교



14 / 2010

2011 NOV + DEC 10 | 11



를 지으면서 구건물을 기술자들이 숙소로 쓰고 새로 제작한 책걸상을 보관해 두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게 교실 정리를 해야 했다. 100개의 책상을 500미터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일은 참으로 난감했다. 차를 부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 소속 차로 운반하자니 한번에 운반할 수 있는 수량이 적어서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침에 반룡시장에서 인부 2명을 불러 교실 안의 자재를 밖으로 옮기고 조금씩 운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학교마당에 무성한 풀을 베고 청소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책상 나르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지만, 언뜻 이런 힘

든 일을 아이들을 시켜도 되나 해서 망설여졌다. 그 사이 벌써 선생님과 제이티에스 현지시스템이 아이들이 책상을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옮기는 일을 시작했다.

선생님과 현지 스텝, 학생이 하나되어

우려와는 달리 아이들이 책상을 즐겁게 나르고 있어서 하나의 놀이가 되고 있었다. 선생님과 현지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책상을 들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책상을 힘들지 않게 들 수 있게 자세를 잡아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4명이 그룹이 되어 책상 한 개를 마을회관으로 옮겼다. 힘들지도 않는지 아이들은 책상을 마을회관에 내려놓고는 다시 뛰어 학교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다시 가뿐하게 책상을 나른다. 이렇게 오늘 책상 30개를 나르고 내일 다시 아이들이 나르기로 했다. 옮겨진 책상은 내일부터 마을주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왁스칠할 것이다. 그러면 책상을 깨끗하게 더 오래 쓸 수 있고 특히 캄보디아는 흙먼지가 아주 많이 쌓이는데 책상을 닦기가 수월하다.

교실 안을 비우고 더 정리할 게 없나 둘러보면서 살폈다. 교실바닥이 군데군데 움푹 패이고 흙먼지가 가득했다. 책걸상이 낡고 더러워서 교실이라기보다는 허름한 창고같아서 학교건축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장도 넓게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어서 학교 오는 것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게

선생님과 현지시스템은 아이들에게 책상을 들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책상을 힘들지 않게 들 수 있게 자세를 잡아 준다.

해주고 싶었다.

끄레, 툰 마을엔 임시학교 마련

파촌툰 마을에는 낡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교실이 있어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두 마을은 아예 교실이 없어서 학교건물이 완공되기까지 임시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학교가 생겨도 캄보디아 학사일정 때문에 아이들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님과 함께 임시학교의 장소를 결정하고 선생님들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숙소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장소가 결정되면 새로 제작한 책걸상을 우선 사용하여 수업을 먼저 시작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요즈음 학교공사에 대해 마음이 바빠진다. 아이들이 가능하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새 학교 건축을 서두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새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아이들은 까만 얼굴에 반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몇 째은 표정으로 날 쳐다보겠지.’ ✿

글 박주선 | 캄보디아 JTS



해외소식 _ 아빠까달, 인도네시아

공사 시작한 가구가 17가구...

마감공사만 남은 1차공사
지금 시작된 2차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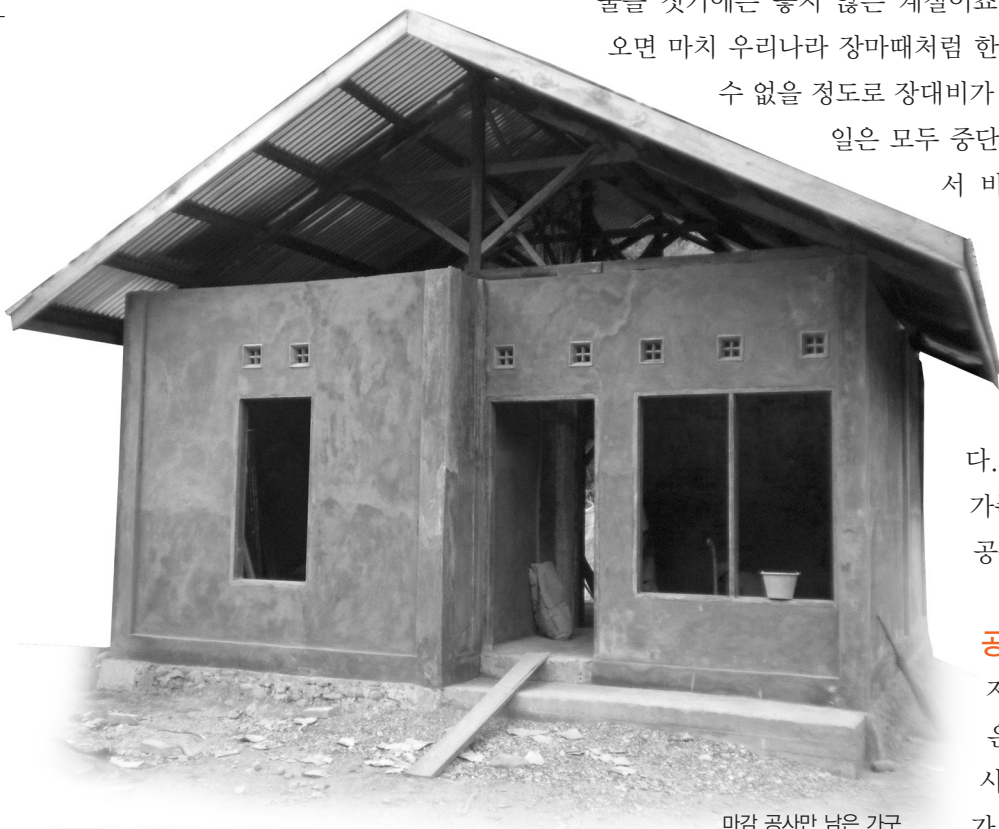
지금 루복바송에서는 우기 시작

지금 이곳은 라마단 기간이 끝나고 9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낮은 우리의 여름 날씨지만 해가 지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죠. 아마 한낮의 무더위를 한차례 장대비가 견여가주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비가 잦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에는 좋지 않은 계절이죠. 한 번씩 비가 오면 마치 우리나라 장마때처럼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장대비가 쏟아지죠. 외부

일은 모두 중단되고 오직 안에서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간간히 비가 개이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온 가족이 모여 다시 공동노동을 하죠.

공사 진척 상황

저희 공사 진행은 1차로 공사를 시작한 가구 수가 17가구, 몇 가



마감 공사만 남은 가구

“2차 15가구는 지금(10월 중순) 시작되었습니다.
시멘트와 골재, 벽돌 등 기초공사와 벽체공사용 자재들을 한참 배달중이죠.”



구 빼곤 거의 지붕을 올리고 마감공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2차 15가구는 지금(10월중순) 시작되었습니다. 시멘트와 골재, 벽돌 등 기초공사와 벽체공사용 자재들을 한참 배달중이죠. 나머지 3차 18가구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입니다. 총 50가구를 올해까지 마쳐야 하는 공정입니다. 아직 반

환점도 돌지 못했지만 올해까지 공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아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를 소통하며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죠.

공사가 바빠지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책임자인 에코와 담당공무원인 빠줄까지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특히 빠줄은 이번에 제이티에스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사정에 밝고 주민친화력이 뛰어나서, JTS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네의 리더들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윤력조직을 결성시키고 차질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 작업을 해줍니다. 또한 수혜가구 선택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줘 우리가 공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 일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 그랬지만, 여기 또한 집 짓는 일에 어린애들까지 자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써야하는 좁은 방이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공부방을 만드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습니다. 나중에 그 방에서 공부하고 친구들 불러 같이 노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

글 임희성 | 인도네시아JTS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북한 수해피해 함께 이겨나가요

2010년 8·9월, 대북 수해지역 지원

정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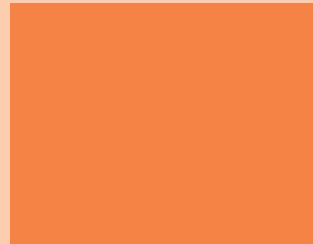
JTS는 9월 25일(토) 오전 10시 인천항에서 신의주의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긴급구호물자를 보내는 선적식을 했다. 선적식에는 JTS 후원자 130여분이 참석해서 구호물품에 따뜻한 마음을 더해서 더욱더 풍성한 물자보내기가 되었다.

JTS는 7월과 8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북한 전역이 심각한 물난리를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히 신의주와 인근지역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여 많은 가옥과 농경지가 매몰되고 침수되었다. 주택이 완전히 파괴된 수많은 주민들은 그대로 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라고 한다. JTS는 넋 잃은 수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마음을 담아 구호물품을 준비했다.

보내지는 구호물품으로는 밀가루 500톤, 담요 3,000장, 겨울신발 2,500켤레를 비롯하여 구급함 400세트, 사혈침 1만개, 세숫비누, 빨래비누 각각 5000개 등 20피트 컨테이너 30대 분량의 식량과 겨울나기 생활필수품이다.

긴급구호물자는 9월 25일(토) 인천항을 출발하여 27일(월)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해서 육로를 통해 함경남도의 함흥시와 영광군 등의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였다.

JTS는 지난 8월에 개성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에 긴급식량지원으로 밀가루 200톤을 지원하였고, 9월에는 개성인근의 수해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밀가루 100톤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개성육로를 통하여 JTS 법륜 이사장과 김애경국장이 직접 인도요원으로 참여했다. ❀



‘친구야, 밥먹자’ 대북 지원 선적식 진행

식량 및 담요 등 따뜻한 겨울용품 컨테이너 57대 보내

10월 29일(금) 1시50분 인천항 제1부두에서 JTS의 대북지원 선적식 ‘친구야, 밥먹자’가 진행되었다. JTS 후원회원 170여명을 포함하여 내외신 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선적식은 2010 인천광역시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인천광역시와 함께 진행했다.

10월에 보낸 품목은 밀가루 300톤, 두유 359,712개, 이유식 10톤, 설탕 20톤, 어린이영양제 42,000정, 겨울담요 12,000장, 겨울체육복 12,000벌, 겨울털신 12,684켤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원 물품은 31일(일) 인천항을 출항하여 남포항을 통해 북한 전역(평양, 자강도 제외)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양생원, 농아학원, 맹아학원, 양로원 53곳 12,000여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지원된다. 아직 수해 피해도 채 극복하지 못했을 텐데 이번 지원을 통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JTS 후원자이면서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대구불교방송 아나운서 최현태님의 토박토박한 사회로 선적식 행사는 시작되었다. 노란색 운동복을 입은 동그라미유치원 어린이들의 “친구야 안녕” 울동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밝은 기운이 넘쳤다.

연이어 JTS 법륜이사장님은 인사말씀에서 “북한은 고아원 시



국내소식 _ 함께 나누는 사랑



설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한 도에 하나씩 있다. 11개 도 중에서 평양시와 자강도를 제외하고 북한전역에 소위 고아원을 다 지원하게 되고, 장애인 시설, 양로원에 지원을 합니다. 53군데 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비롯한 식품, 옷을 비롯한 생활용품 등 30여 종류가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에게 제일 감사합니다. 의혹도 많은데 저희를 믿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 물품을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회사의 대표들을 초청한 이유가 사실 원가가 안 나올 정도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신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취약계층 영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북 관계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는 민간인인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중적인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JTS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번에 후원을 해주신 신동근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은 인사말씀에서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분단선을 그어보면



서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하지 않으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남북이 화해를 해야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3번째 지원입니다. JTS는 빵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따뜻한 옷과 담요 등도 준비하신 것 같아 좋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가길 바랍니다.”고 지원의 긍정성을 말씀해 주셨다.

이번에 지원되는 많은 물품은 여러 기업에서 동참해주었다. 이를 대표해서 더초록식품의 장달원 대표이사는 “한 일도 없는데 초청해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초록식품은 야채, 육류 등을 8초만에 건조하여 천연 조미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한 이유식은 30만 명의 어린이의 한끼 식량의 분량입니다. 마음으로는 1년동안 내내 먹을 수 있는 물량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북쪽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단체 제이티에스가 지원의 물꼬를 텃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고 더 많이 지원하고 싶은 마음을 전했다.

재즈 가수 김미린 씨의 축하 공연 “우리는”은 행사장 전체를 따스하고 잔잔하게 다독여주었다.

이어서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고 건강을 기약하는 박 티뜨리는 시간이 풍물패 신명나눔의 “신명나는 풍물 나눔굿”의 풍악과 함께 진행되었다. 희망을 담은 파란 박 “우리는 하나”, 희망을 담은 하얀 박 “친구야 밥먹자”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과자와 지팡이사탕이 우수수 듬뿍 쏟아져서 참가한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기뻐했다.

행사가 끝난 뒤 지원품목 중의 하나인 삼육식품에서 만든 두유를 직접 시식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되었다.

이번 지원은 되도록 저렴하게 해서 많은 질 좋은 물품을 보내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고로 이루어졌다.

JTS가 이렇게 계속해서 대북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후원자님들의 정성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변함없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국내소식 _ 사람이 있는 풍경

애광원 경주 나들이

JTS는 2010년 10월 18일(월)에 애광원 생활인들을 초청해 경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였다.

총 147명(애광원 62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5번 나들이 중 가장 중증도 생활인들이 결합하면서 난이도가 높았으나 애광원 선생님들과 JTS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즐겁고 감동적인 행사가 되었다. 이번호는 애광원 경주나들이에 대한 애광원 생활재활 선생님들의 소감문을 실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전석구(애광원 생활재활교사)

매년 참여하다시피 했는데 경주나들이를 시작한지 5년이 흘렀군요.

아시겠지만, 애광원은 동지마을과 민들레집이라는 생활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이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있는 곳입니다. 각기 백여명의 생활인들이 살고 있어서 일손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일상 서비스 제공에도 인력이 딸릴 때가 있어서, 외부 나들이나 행사를 계획할 때는 큰 맘 먹고 계획과 준비해야 합니다. 나들이 인원도 담당직원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많은 인원이 나들이 가면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구했더라도 봉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세심하게 신경써야합니다.

그런 저희의 필요와 요구에 JTS가 주관하는 경주나들이는 딱 맞아 떨어지는 행사라고 늘상 생각했습니

다. 각 생활인들의 손을 꼭 잡고 자상하게 웃어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행사전반을 관리하고 운영을 위해 뛰시는 정교회 행사요원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감에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쪽 준비가 덜 된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번에도 1명 또는 2명이 짝을 이루어서 생활인들과 같이 이동하시는 JTS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외부나들이가 적은 저희 생활인들에게 아주 소중한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정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비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개구장이같은 범명스님 모습과 자상하게 잔잔한 미소를 띄고 설명해주시고 생활인과 함께 걷던 범륜스님의 모습. 인간적인 감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하시고, 진행에 여념 없으시던 JTS 진행요원들의 부지런한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생활인들의 이동에 따라 무전기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시던 모습, 그리고 이동 경로에 도열해 계시던 진행요원들. 든든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희가 JTS에 제공한 정보나 내용이 JTS에서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누가 될 정도로 부실하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따뜻하고 쾌청한 날씨였고, 생활인과 자원봉사자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 무척 보람 있었습니다. 외부나들이가 특히 적었던 올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인솔하기에 버거운 생활인들이 있었습니다. 나들이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때로는 그냥 바닥에 눕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이나 식사를 그대로 덮치는 생활인의 행동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자원봉사자를 보고 있으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측은지심과 염려하시는 모습으로

국내소식 _ 사람이 있는 풍경



생활인을 바라보시던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조금도 얼굴을 찡그리시거나, 불평하시는 말씀 없이 어떻게 하면 생활인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저희에게 물어보시던 자원봉사자님들. 부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싶었습니다.

올해에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인들에게 풍성한 가을 하늘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광원에서도 감사의 뜻으로 JTS 여러분을 위한 행사 하나를 기획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윤희(애광원 생활재활교사)

경주를 가기 위한 준비로 새벽부터 분주했다. 그 분주함 속에서 생활인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즐거워 보였다. 이들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이들 역시 경주나들이에 대한 설렘과 기대의 들뜸이 있었다. 일찍부터 많은 선생님들의 배웅으로 경주로 출발하였다. 버스에서 간식도 나눠먹고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비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다. 오랜만의 외출이라 많이 설레고 기쁜 반면, 새로운 환경에 긴장을 한 탓인지 진실씨가 소변실수를 하는 깜찍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게 경주에 도착하니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미리 나와 밝은 표정으로 반겨주었다. 사실 생활인들을 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의 걱정으로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것도 잠시. 생활인들에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손도

잡아주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이번 나들이가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나들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였다.

경주나들이 일정 가운데 패릉에서의 레크레이션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재즈가수 분의 '토암산' 노래는 경주나들이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이 지속될 만큼 큰 감동을 주었고, 범명스님의 유머러스한 진행과 생활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래와 춤을 보며 오랜만에 한바탕 크게 웃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생활인들과 자원봉사자들께서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로가 하나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경주나들이를 통해 평시에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해서 인지 많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인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지만, 생활인들과 함께한 봉사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보행이 불가능한 생활인들을 직접 안고 버스에 타고 내리고, 관광지를 구경할 때마다 생활인들의 눈높이에서 대화는 되지 않지만 어떻게든 설명해주고, 항상 손잡고 다니며, 생활인들이 다리가 아플까봐 주물러도 주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하루 동안 마음이 벅차있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그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가슴 한쪽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사실 생활인들과 거의 매일 함께 하다 보니 나는 어느 순간 그들에게 무덤덤해지고 무뎌지곤 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가을은 경주나들이로 인해 애광원 식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각자의 바구니가 한층 풍성하고 열매들이 가득 차 넘치는 해가 된 것 같다. 🌸



국내소식 _ JTS가 만난 사람

JTS와 함께하는 사람들



20살때 처음으로 매월 3천원의 돈을 구호단체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첫마음이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쓰러움이었는지, 의무감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마 순간의 객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착실히 부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밀린 지로용지를 보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할거면 하지마라! 그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니?!’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애타게 기다릴 수도 있구나! 어머니와, 나와 한 약속을 제이티에스 활동으로 지켜나갑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시아의 유니세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한국제이티에스. 지금까지의 시간은 밀착업의 시간이었다면, 내년엔 활짝 꽃을 피우는 시기였으면 합니다.

제이티에스로 인해, 더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바라봅니다.

노희경(방송작가)

“안녕하세요? 제3세계 구호단체 JTS입니다!”라는 인사말로 후원회원님께 전화 작업하는 장소영입니다.

08년 5, 6월경인가 이 일 하던 분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냥 전화해서는 ‘연장 또는 종료하시겠습니까?’를 묻고 연장, 종료를 리스트에 적어두기만 하면 된다는 말에 전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음에도 업무

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화해보니 어떻게 응
대할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제게 왜 그렇게도
질문들은 많은지...

JTS가 어떤 곳인가? 어떤 방식으로
후원하나? 필리핀 민다나오의 주소
는? 우물 파는데 얼마가 소요되는
지? 물품후원은 그냥 보내면 되나?
왜 다른 곳처럼 1:1방식으로 후원하
지 않나? 등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당황했구요. 또 기본으로 알아야할
CMS와 자동이체의 차이도 제대로
알지못한 채 ‘회원님의 후원연장’ 이
란 그 단어에 혹해서 자동이체할 경
우 은행에 가서 연장한다고 이야기
해야함을 알리지도 않고 끊어서 후
원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등 시행착
오를 거듭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원님이 이런 제 맘
을 알아차렸나봅니다. 제 목소리에
서 JTS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이지요. “지금 봉사하시는
거 맞죠? 친절치 못하고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라고. 그리고 반갑게
받아주시며 “수고하십니다” 등의 인
사, 그리고 후원금액이 큰 회원님의
후원연장이나 종료에 따라 제 마음
은 좋고 싫음으로 출렁였습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회원님의 부모님께

서 전화를 받으시고 제게 힘든 맘을
말하시면 저는 그냥 열심히 들어드
리고,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좋은 마
음으로 후원하시는 분에겐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칠 수 있게 격려해드리고,
시끄러운 작업현장에서 큰소리로 전
화하시면 저 또한 큰소리로 연장을
권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동료들
의 눈치를 보며 들리지도 않는 작은
목소리로 받으면 저 또한 목소리가
작아진답니다. 이런 회원님 한분 한
분이 모두 고맙고, 죄송합니다.

또한 요즈음 저는 젊고 능력 있어서
정확하고 빠지기 좋아하는 2,30대
분들도 애교로 받아들여줍니다. 저
또한 따지고 묻고를 잘했으니까요.
오늘도 “안녕하세요? JTS입니다. 이
번 달이 후원종료일이라 연장해 주
십사하고 회원님에게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장소영(한국 JTS)

“뭘라 말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색하고 쑥쓰러워요.”

“잘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와요.”

아이들하고 전단지 읽고, 안내 맨트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 둘러주고, 2인 1조로
모금함과 전단지를 들고 나서도록
하면서 돈을 쥐도, 안쥐도 “고맙습니





다!” 인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1000원이 이렇게 큰 돈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음에는 모금하는 사람 만나면 돈 줄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9월 25일에, 고인돌공원에서 열리는 [강화도 어린이문화축제]에 가서 모금을 했습니다.

어린이축제니까,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지구촌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사는 어린이날에 하는 JTS 모금으로 계획된 것인데, 강화에서는 연기가 된 것입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말입니다.

10월에 연이어 있는 축제들에게 밀려서 그런지, 추석연휴 뒤끝이라 그런지 조금은 썰렁한 축제였습니다.

아이들이 몇 바퀴 돌면서 익숙해지는 동안 기다렸다가 저도 모금함과 전단지를 챙겨 들고 나해보았지요.

한결같이 “받았어요.” “돈 넣었어요.”~ 그새 우리 아이들이 완전 싹쓸이 한 것입니다.

언제나 든든한 JTS자원봉사자이신 김윤숙님이 둘째아이와 오셔서 함께 하셨구요,

문자 보고 달려와서 모금해주신 자원봉사자도 계시구요,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해하시는 자원봉사자는 2만원 챙겨서 넣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진행한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계획했던 일을 “그냥!”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딸아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강화도어린이문화축제]에는 언제나 JTS모금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 좋았습니다.

김미현(한국JTS)

인도소식

I. 수자타 아카데미

간디 기념일 행사

10월 2일 수자타 아카데미 프락보디홀에서 전교생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디 기념일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반 학생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으며, 전교생에게 특별식이 제공되었다.

9, 10학년 바라나시 교사수련

수자타 아카데미 9,10학년 신입교사들이 삼성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바라나시 교사수련을 10월 2일, 3일에 걸쳐 다녀왔다. 인도 유적지인 강가강과 힌디대학을 방문하고, 불교 유적지인 사르나트와 녹아원, 영불탑 그리고 박물관을 참배하고 관람하였다.

초등학생 소풍

수자타아카데미 초등학생들은 10월 13일 동게스와리 전정각산을 중심으로한 즐거운 소풍을 갔다왔다. 학년별로 전정각산과 티벳절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는 동게스와리 지역에 대한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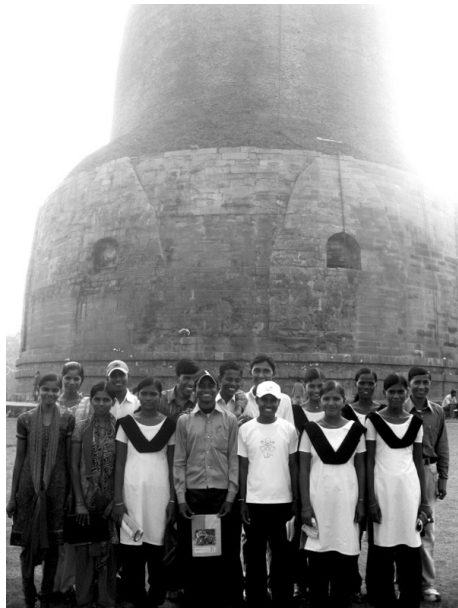
중학생 소풍

9월 11일 중학생 90여명은 보드가야에 소풍을 다녀왔다. 보드가야 대탑과 박물관을 방문하고, 공원에서 퀴즈 프로그램과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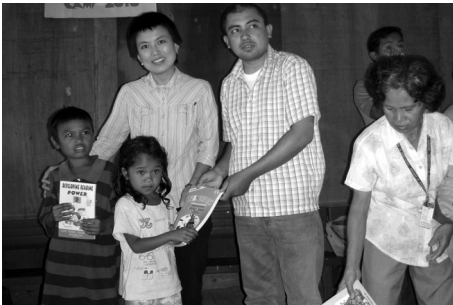
II. 지바카병원

결핵 검진 받으러 가는 날

매주 화, 목은 결핵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다. 병원에서 1시간 거리의 보드가야에 있는 검진센터로 매주 앰블런스가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2년전 인도정부 결핵 관리프로그램(RNTCP)으로 전환 후 환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결핵 완치율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결핵약을 공급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한 결과이다. 더불어 동게스와리내 결핵 환자 발굴 및 감염율 조사를 위한 한 개 마을 (두르가푸르) 표본 조사가 이루어졌다.



필리핀소식



필리핀정토회 도서지원금 전달

2010년 9월 1일 마닐라 정토회에서 민다나오 제이티에스에 도서지원금으로 172,820페소(한화 4,320,500원 상당)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 기금은 거리모금, 필리핀 한인 체육대회 때 국수, 음료수 판매금 및 개인성금을 통해 모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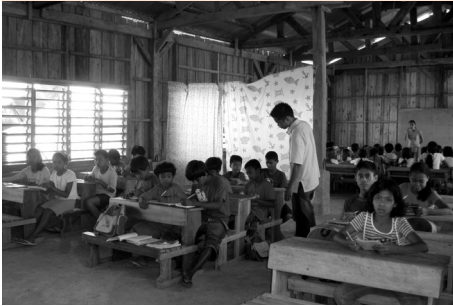
이 후원금으로 민다나오 제이티에스에서 지원한 학교중 13개 학교 960명 학생들에게 과학책 1권씩과 5개 학교에 백과사전 1질씩 지원할 예정이다.

산마테오학교 정규교사 파견

10월 1일 산마테오 학교에 교사가 파견되어 학생들이 정규 교과 과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2006년 준공식을 마친 산마테오 학교는 그 동안은 학교 선생님이 없어서 유치원 선생님과 함께 유치원 수업과 성인들 대상 문자 교실만이 있었다. 초등학교 정규 선생님을 맞이하여 정규수업을 하게 된 학교에 제이티에스에서는 교과서를 지원하였고 이어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블루안, 파곰퐁, 키다마 학교수업 시작

9월부터 작년 12월 준공식을 한 다물록 지역의 세 학교, 블루안, 파곰퐁, 키다마 학교가 시작되었다. 각 지역 모두 2명의 교사가 파견되어 정식 수업이 시작되어 아이들은 이제 먼 길을 걷지 않고도 마을에 있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소식

캄보디아 소식

툰마올과 그레마을에서는 비닐을 이용해서 빗물을 담아 공 사용 물로 이용하여 물부족 문제 해결방안을 실험중이다. 옴마을 14명, 파촌툰 25명의 주민이 공사에 참여하여 바닥 흙메우기 작업을 하였다. 2011년의 신규마을로 웬사이(Veun Sai)지역 3개 마을, 언동미어(Andoung Meas) 등을 답사하였다.

인도네시아 소식

인도네시아 루북바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진피해 지역의 주택복구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1차 지원이었던 17가구 가운데 13가구가 지붕공사까지 마쳤고, 내·외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차 15가구 중 8가구에 대해서 자재가 배달되어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스리랑카 소식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의 야카웨와와 카누가하아웨와 두 마을에서는 농업을 위한 우물과 저수지 만드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이티 소식

9/28일-10월1일 3박4일 동안 아이티의 학교건축 상황에 대한 점검차 박지나 대표님의 아이티 방문이 있었다. 아이티 긴급구호 이후 JTS는 현재 레호간에서 AHV(All Hands Volunteers)와 협력하여 학교를 짓고 있다.



국내소식

인천시청에서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 협약체결식

10월 1일 인천시청 시장실에서 JTS는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지원 공모사업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지난 9월 인천시가 낸 공모사업에 JTS의 '북한 전국 9개 시도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 지원 사업'이 선정되면서 인천광역시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된 이 협약식에는 김기진대표님이 참석하였다.



국내소식

타단체와 연계해서 개성육로로 대북 밀가루 지원

지난 8월 27일 임진각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개성육로로 지원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종교인 모임)에서 JTS는 밀가루 300톤을 지원했는데, 개성시(개풍군 포함), 황해북도 장풍군과 금천군, 황해남도 배천군 등 6개 지역의 육아원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나누어졌다. 9월 16일에도 대북긴급수재민지원을 위해 임진각에서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민화협과 함께 밀가루 100톤을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하였다.

인천항에서 대북수해지역 지원물품 선적식 가짐

JTS는 지난 9월 25일 인천항에서 대북수해지원물품 선적식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북한전역에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JTS는 밀가루 500톤, 담요 3,000채, 겨울신발 2,500켤레, 비누 10,000장 등 식량과 생필품을 남포항을 통해 함경남도의 함흥시와 영광군 등의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지원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현황을 모니터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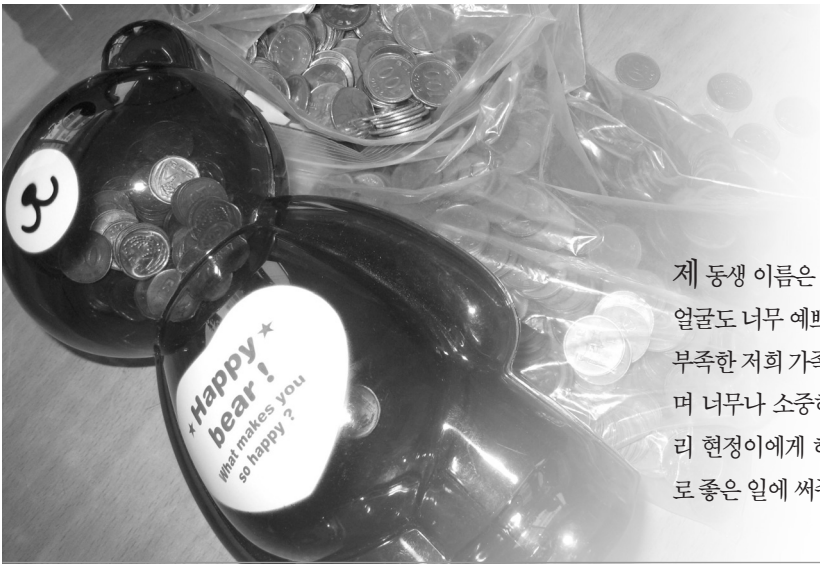
'친구야, 밥먹자' 대북지원 선적식 진행

10월 29일(금) 1시50분 인천항 제1부두에서 JTS의 대북 지원 선적식 '친구야, 밥먹자'가 진행되었다. JTS 후원회원 170여명을 포함하여 내외신 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선적식은 2010 인천광역시 '북한 영유아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인천광역시와 함께 진행했다. 지원된 물품은 밀가루, 두유, 이유식, 분유, 초코파이, 라면 등의 식량과 겨울 담요 및 털신, 목도리, 체육복 등 겨울나기 생필품과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등 체육 소모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물품은 총 컨테이너 130여대 분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 걸쳐서 지원되며 이번엔 57대 분량을 먼저 보냈다.



제천 꽃피는 학교 아시아 문화동아리, JTS에 후원금 전달

지난 10월 14일 제천 꽃피는 학교(제천 봉양읍 공전리 소재)에서 북한동포돕기 성금 전달식이 있었다. 제천 꽃피는



제 동생 이름은 임현정입니다.

얼굴도 너무 예쁘고 마음도 너무 착하고 예쁜 현정이는 부족한 저희 가족에게 하늘에서 온 천사 같이 머물러주며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을 주었는데, 이제 우리 현정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정이 이름으로 좋은 일에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산에서 임화정

학교에 (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 동아리가 있는데 분과로 북한동아리가 있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이번에 학생들이 정성을 모아 북한동포돕기 성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날 전달된 성금 510,350원은, 학교 절기 행사인 추분제에서(10월10일) 학생들이 북한 순대, 일본 오코노미야끼, 중국의 월병 등 아시아 음식과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수입과 9학년 학생들이 평화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엽서로 만들어 판매한 수입, 부모님들의 아나바다장터 수입까지 더해서 모았다고 한다.

꽃피는 학교에서 후원하신 기금은 북한동포들에게 밀가루, 모자, 이불, 털신 등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겨울 생필품 지원에 쓰일 것이다.

추운 겨울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함께 지원해 주신 제천 꽃피는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형,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남 꽃피는 학교, 사랑의 저금통 50여개 전달

10월 22일, 하남 꽃피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정성껏 모아온 저금통을 JTS에 전달했다. 인도의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엄마, 아빠와 같이 열심히 모았다고 꼭 인도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저금통 모으기에 동참한 한 학생의 아름다운 마음도 전달했던 뜻깊은 자리였다. 하남 꽃피는 학교에서 후원하신 금액은 인도의 어린이들의 급식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셜커머스 사이트 '남' (<http://nyam.co.kr>)에서 매출의 1%를 JTS 로 기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소셜커머스 사이트 '남' (<http://nyam.co.kr>)에서 매출의 1%를 JTS 로 기부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다양한 상품을 50%할인된 금액으로 만날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는데,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기부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JTS 사회공헌팀이 제작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기부 다이어리 <당신 덕분에 환하게 웃습니다>가 11월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금액은 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JTS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주위분들에게도 뜻깊은 다이어리를 선물해주세요.

구입 문의 :
장현주 010-4557-9190



남과 함께하는 놀랍고도 따뜻한 세상!
할인도 높이고 어려운 지구촌아동도 도울 수 있는 1422종의 한스타!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부단체 JTS(Join Together Society)는 국제기부·50% 할인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NGO 단체입니다.



7년 1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새나눔회원 _ 개인 ·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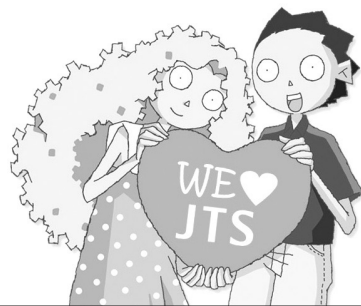
정기후원자 명단은 지면할애상 제외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2010년 08월 01일 - 09월 30일

문의전화 02-587-8995

인도 및 제3세계	김상주	P0041800	류혜경	P0050710	
강덕환	P0050826	김새봄	P0048485	마춘희	P0045641
강민석	P0050284	김성례	P0049366	문영희	P0051023
강신미	P0051756	김숙찬	P0050489	문은철	P0051519
강아름	P0050286	김숙희	P0050834	문혜경	P0051235
강은희	P0016657	김순자	P0050966	민평기	P0050707
강인수	P0050721	김순희	P0051020	박금녀	P0051106
강희경	P0051121	김승실	P0050730	박미란	P0050713
고명자	P0051062	김애경	P0050007	박미선	P0050719
고승연	P0050996	김연희	P0051067	박민서	P0050134
고원영	P0050641	김영균	P0051165	박민수	P0051209
공영숙	P0051293	김영란	P0051166	박민정	P0050242
공혜진	P0051581	김영철	P0050924	박병락	P0050660
곽태경	P0050903	김영희	P0046480	박삼숙	P0050792
구영란	P0026731	김영희	P0050637	박상희	P0051075
구은정	P0048833	김은영	P0048058	박성대	P0051759
구현애	P0051421	김은희	P0050729	박성재	P0051006
권문희	P0049672	김응표	P0050246	박소현	P0050289
권서운	P0049475	김정화	P0050063	박숙자	P0050232
권연순	P0044785	김정희	P0031987	박신영	P0051524
금연희	P0050219	김정희	P0051217	박영미	P0048786
김경동	P0050790	김지안	P0051212	박영진	P0051832
김경민	P0050287	김지예	P0050636	박윤정	P0051196
김경자	P0050781	김진경	P0051754	박이윤	P0051109
김경주	P0047885	김찬중	P0050366	박지영	P0050735
김경환	P0044886	김철수	P0050493	박재완	P0046166
김광모	P0050019	김춘수	P0017244	박정오	P0051935
김교지	P0025194	김태경	P0050669	박종인	P0051830
김기완	P0038151	김태현	P0032920	박준식	P0050023
김기훈	P0051644	김하영	P0051092	박진남	P0050712
김남훈	P0045784	김현수	P0050819	방정자	P0019871
김다혜	P0043074	김현주	P0050374	배원준	P0013809
김덕호	P0050648	김혜영	P0051005	배운선	P0013810
김도형	P0051240	김혜정	P0051831	배철호	P0050917
김란	P0050668	김홍필	P0052187	백금례	P0050536
김문갑	P0051735	김효주	P0050110	백송의	P0050292
김마선	P0050370	김희동	P0027943	백운재	P0047152
김미정	P0032302	나민순	P0050022	백은영	P0050999
김미화	P0051539	남성란	P0050249	백진호	P0050941
김미환	P0002283	남종섭	P0051772	변재연	P0050632
김민주	P0038261	로알통상 조문		서대선	P0051558
김민주	P0050824		P0032344	서병옥	P0047515
김부배	P0050248	류미옥	P0045559	서영근	P0050643

서해수	P0051233	윤선영	P0050901	이지윤	P0046219
선경선	P0051748	윤소진	P0033586	이지혜	P0051120
선수빈	P0050189	윤용대	P0012429	이현정	P0051547
설미현	P0051122	윤학수	P0010314	이현정	P0051820
성경미	P0051329	윤현찬	P0050002	이혜정	P0051167
성정화	P0050995	윤희옥	P0050543	이호정	P0051018
손두환	P0050779	이경희	P0041235	임영현	P0051097
손양훈	P0050785	이나윤	P0052107	임인선	P0050018
손영순	P0050277	이덕영	P0050822	임찬안	P0047438
손원지	P0050948	이명숙	P0050817	장보현	P0050667
송균선	P0052701	이명정	P0035802	장수미	P0032592
송미경	P0050188	이미경	P0050993	장승보	P0050666
송종순	P0031658	이미경	P0051299	장연주	P0051002
신동호	P0051090	이미숙	P0042924	장원재	P0051028
신영순	P0044243	이미영	P0050649	장희문	P0048125
신의숙	P0050376	이민정	P0035141	장희석	P0049071
신혜영	P0051225	이보라	P0050310	전낙원	P0050235
신현정	P0052702	이상민	P0051213	전상택	P0051279
심상범	P0050726	이상철	P0051300	전재원	P0051645
심호진	P0051571	이성옥	P0045267	전명환	P0048329
안소연	P0051078	이성윤	P0050789	전현웅	P0050293
안은정	P0050728	이세규	P0043031	정금선	P0001743
안정선	P0048999	이수미	P0051297	정꽃님	P0032497
양동진	P0051774	이승묘	P0050731	정대진	P0051856
양미정	P0038917	이승옥	P0050787	정덕숙	P0051205
양예인	P0050691	이연주	P0050783	정명희	P0051072
엄윤아	P0032886	이영미	P0050965	정상진	P0019931
엄종수	P0030998	이영선	P0051287	정선경	P0051017
여기법	P0050220	이영숙	P0044660	정양순	P0051743
여승은	P0051580	이영숙	P0051294	정영희	P0050780
염지현	P0050290	이예성	P0050653	정유동	P0051753
오경희	P0048021	이옥경	P0007328	정희숙	P0004405
오임순	P0050997	이은선	P0051542	조미애	P0016969
오지민	P0041857	이은숙	P0050897	조병준	P0039700
오진수	P0050115	이재숙	P0050535	조선연	P0023176
오진아	P0050244	이정미	P0051575	조성리	P0050240
우재임	P0050501	이정민	P0051554	조수진	P0051231
우혜진	P0051060	이정연	P0050915	조안희	P0049474
우희수	P0051113	이종률	P0050388	조영순	P0051833
원호	P0042451	이종조	P0050998	조은숙	P0047421
유경숙	P0050060	이주영	P0051099	주경애	P0047489
유원재	P0045513	이준	P0050786	주정미	P0051027
유화니	P0051549	이준희	P0050723	채선영	P0051007



채화송	P0050325	고자연	P0050313	김성윤	P0051389
천선호	P0051755	고지윤	P0050734	김세진	P0051151
최대호	P0051532	공영숙	P0051293	김수진	P0051119
최명길	P0050255	공혜진	P0051581	김연희	P0051067
최미희	P0050020	구영란	P0026731	김영란	P0051166
최순미	P0051169	권금란	P0051010	김영수	P0051118
최순탁	P0033038	권미라	P0004961	김영숙	P0051221
최영미	P0031547	권연순	P0044785	김영철	P0050924
최정애	P0048585	권은구	P0051229	김영희	P0046480
최정환	P0051796	권지은	P0019451	김영희	P0050637
최진수	P0050732	금연희	P0050219	김옥희	P0009804
최향아	P0049922	김경숙	P0050990	김우현	P0043595
최현미	P0050633	김경주	P0047885	김은영	P0048058
최현진	P0049375	김경호	P0050698	김은희	P0050729
최형수	P0050829	김경환	P0044886	김용표	P0050246
파주보광사 선정회		김광모	P0050019	김재권	P0051223
	P0051296	김광현	P0051332	김재일	P0042733
한솔아	P0050815	김기완	P0038151	김창기	P0051585
한수자	P0049339	김남훈	P0045784	김정민	P0052365
한옥엽	P0046726	김남희	P0051220	김정연	P0045578
허석	P0051770	김덕업	P0051801	김정연	P0051110
허영운	P0051004	김덕호	P0050648	김정화	P0050063
현근영	P0051073	김동훈	P0050372	김정희	P0051217
홍미경	P0050190	김말순	P0021378	김종숙	P0050994
홍은희	P0050012	김명환	P0048790	김종순	P0051742
홍준표	P0050008	김문갑	P0051735	김찬중	P0050366
황영아	P0050251	김문규	P0051523	김철수	P0050493
황혜훈	P0038701	김미정	P0032302	김태경	P0050669
황화숙	P0047952	김미호	P0051066	김태을	P0051241
		김민영	P0023794	김태호	P0050387
		김민재	P0051799	김하영	P0051092
		김민정	P0050899	김향미	P0051107
		김민정	P0051325	김현수	P0050819
	P0051111	김민지	P0050647	김현정	P0051009
강덕환	P0050826	김복일	P0051527	김현주	P0049931
강은희	P0016657	김봉란	P0050868	김혜연	P0051168
강인수	P0050721	김상국	P0051816	김혜영	P0051005
강희경	P0051121	김상주	P0041800	김홍욱	P0050499
강희애	P0050872	김새봄	P0048485	나선미	P0051288
고 조형두	P0051752	김선남	P0046168	남종섭	P0051772
고명자	P0051062	김선옥	P0051074	남화정	P0028074
고승연	P0050996	김선혜	P0051195	노정은	P0038533
고원영	P0050641	김선호	P0050832	류미옥	P0045559

북한어린이돕기

(주)보성선박전자장비

문영희	P0050389	성은정	P0050291	이기찬	P0051515
문혜경	P0051235	손미순	P0050250	이도희	P0050871
문혜영	P0050516	송미경	P0050188	이명철	P0048347
민평기	P0050707	송수용	P0051076	이미경	P0050993
박경화	P0004818	송정희	P0050098	이미경	P0051299
박기홍	P0052153	신연옥	P0027419	이미숙	P0042924
박미나	P0050367	신의숙	P0050376	이민아	P0050714
박미선	P0050719	신혜경	P0050869	이민주	P0004663
박미영	P0051000	심봉주	P0006757	이보라	P0050310
박민서	P0050134	심상범	P0050726	이상우	P0050262
박민수	P0051209	심유현	P0002366	이성심	P0046513
박민정	P0050242	심현미	P0050635	이성제	P0017672
박병락	P0050660	심호진	P0051571	이세영	P0039388
박삼숙	P0050792	양동진	P0051774	이승묘	P0050731
박성길	P0048722	양미정	P0038917	이승욱	P0050787
박세원	P0047548	양애선	P0050841	이승희	P0051773
박수정	P0051105	양종수	P0030998	이연화	P0024081
박순옥	P0051298	여승진	P0051579	이영미	P0050842
박순화	P0050870	연꽃마을	S0039204	이영선	P0051287
박영숙	P0050490	오금숙	P0051064	이영숙	P0044660
박윤경	P0003595	오성윤	P0051383	이예성	P0050653
박윤정	P0051196	오성혁	P0050278	이원욱	P0045876
박이윤	P0051109	오세중	P0050727	이윤지	P0051321
박정수	P0051819	오은영	P0051793	이은숙	P0050897
박정오	P0051935	오지민	P0041857	이자영	P0051516
박지환	P0051573	오진수	P0050115	이재연	P0035017
박지환	P0051800	오철	P0051150	이재용	P0051924
박채임(미성)		우경자	P0004066	이정미	P0051575
	P0049900	우재남	P0052189	이정민	P0051554
박해경	P0050835	우재임	P0050501	이정숙	P0030589
배민지	P0050185	우혜진	P0051060	이정호	P0046787
배소현	P0012479	윤성스님	P0050349	이종률	P0050388
배철호	P0050917	위소열	P0051590	이종조	P0050998
백진호	P0050941	유재운	P0050237	이준	P0050786
백태은	P0051003	유화니	P0051549	이준희	P0050723
서대선	P0051558	윤선영	P0050901	이지윤	P0046219
서병욱	P0047515	윤수경	P0030993	이찬	P0050949
서봉수	P0050821	윤정숙	P0011804	이창재	P0050491
서분남	P0041203	윤화옥	P0050543	이태욱	P0051071
서영근	P0050643	윤희찬	P0050001	이현경	P0051771
서현숙	P0049574	이기현	P0041732	이현자	P0051101
석현주	P0049955	이경희	P0041235	이현주	P0049845
설미현	P0051122	이귀자	P0051117	이현주	P0051281

이형기	P0009140	조병용	P0050003	홍미경	P0050190
이형이	P0051518	조병준	P0039700	홍부영	P0036743
이혜민	P0050902	조성리	P0050240	황서영	P0051330
이호정	P0051018	조용기	P0051095	황영아	P0050251
이홍림	P0050782	주경애	P0047489	황혜훈	P0038701
이화영	P0049261	주진희	P0050494	황화숙	P0047952
임광희	P0051767	진지영	P0043849		
임영현	P0051097	채민경	P0051008		
임찬안	P0047438	채선영	P0051007	북한재건	
장길호	P0037313	최덕선	P0009740	김은희	P0040520
장세영	P0051077	최동진	P0018404	박영민	P0051396
장수미	P0032592	최명길	P0050255	신태정	P0041215
장영민	P0046685	최미향	P0031798	안미숙	P0003784
장영순	P0050716	최연숙	P0050497	우순점	P0012589
장영현	P0051520	최옥	P0050486	윤성진	P0051284
장원재	P0051028	최원경	P0051208	이상원	P0043314
장윤해	P0043506	최윤정	P0051069	정철	P0007007
장정식	P0051162	최은영	P0050492		
장혁수	P0051954	최재경	P0007422	결핵퇴치	
장혜정	P0050644	최재용	P0051289	강만석	P0050284
전낙원	P0050235	최재애	P0048585	강인수	P0050721
전은선	P0050992	최정우	P0051817	강희경	P0051121
전한숙	P0050655	최종오	P0050378	공영숙	P0051293
전현웅	P0050293	최진수	P0050732	권연순	P0044785
정광희	P0048756	최향란	P0050233	김경환	P0044886
정규열	P0050665	최향아	P0049922	김도현	P0051777
정대진	P0051856	최현우	P0051818	김상기	P0051776
정덕숙	P0051205	최현진	P0049375	김선례	P0051108
정보숙	P0050916	최형수	P0050829	김영균	P0051165
정선경	P0051017	최효선	P0046633	김영란	P0051166
정상심	P0050172	필가은	P0051026	김영철	P0050924
정수진	P0004102	한경희	P0045780	김유경	P0051521
정양순	P0051743	한국전자인중(주)		김정희	P0051217
정연미	P0050816		S0051849	김혜영	P0048994
정영경	P0049852	한솔아	P0050815	김형관	P0050533
정영희	P0050780	한수자	P0049339	노정은	P0038533
정원문	P0052176	한영일	P0051460	박민서	P0050134
정유동	P0051753	한옥주	P0003690	박민수	P0051209
정은정	P0042525	함양옥	P0051295	박삼숙	P0050792
정은주	P0050380	허영운	P0051004	박수영	P0050047
정현주	P0050383	허환숙	P0004133	박승국	P0051537
정혜경	P0012417	현근영	P0051073	박용외	P0051014
정희숙	P0004405	홍경미	P0046590		

박준희	P0051586	김경환	P0044886	이영미	P0050842
배철호	P0050917	김미종	P0050736	이영선	P0051287
서대선	P0051558	김선례	P0051108	이은숙	P0050897
서영근	P0050643	김순희	P0051020	이재숙	P0050535
선수빈	P0050189	김영임	P0050014	이정미	P0051575
신명희	P0050947	김영란	P0051166	이준	P0050786
심효진	P0051571	김영아	P0050332	이호정	P0051018
오상희	P0029365	김영철	P0050924	임경애	P0047136
우영인	P0026116	김용화	P0051019	임민숙	P0030706
유화니	P0051549	김유지	P0045782	임영현	P0051097
이연화	P0051778	김은영	P0048058	장수미	P0032592
이영선	P0051287	김정화	P0050063	장혜정	P0050644
이은숙	P0050897	김지은	P0050539	정명희	P0051072
이정미	P0051575	김지은	P0051522	조병준	P0039700
이정민	P0004718	김혜연	P0051168	차선경	P0050988
이준	P0050786	남영현	P0050784	최명길	P0050255
이호정	P0051018	류미옥	P0045559	최민호	P0049046
임영현	P0051097	문지영	P0050991	최은영	P0050492
장승보	P0050666	박미란	P0050713	최형수	P0050829
전경림	P0051280	박민서	P0050134	한광수	P0045781
전한숙	P0050655	박민수	P0051209	한수자	P0049339
조병준	P0039700	박삼숙	P0050792	허영운	P0051004
조성리	P0050240	박지영	P0050735	허재애	P0050241
조아라	P0045863	박준희	P0051586	홍경태	P0051116
주경애	P0047489	박혜옥	P0050238	황인영	P0015309
최명길	P0050255	배철호	P0050917		
최윤영	P0032646	부현정	P0050788		
최형수	P0050829	서대선	P0051558		
허영운	P0051004	서영근	P0050643		
홍영의	P0046337	설미현	P0051122		
황인영	P0015309	송수용	P0051076		
		송정은	P0050324		
		신화영	P0050074		
		심상범	P0050726		

인도모자보건

간디학교작은짜이집	심효진	P0051571
	안수연	P0050010
공영숙	임종수	P0030998
공해진	임진순	P0048572
곽태원	오상희	P0029365
구현애	유화니	P0051549
권문희	이민주	P0004663
권현옥	이상철	P0002915
김경호	이승희	P0051773

특별후원금

2010년 08월 01일 - 2010년 09월 30일

인도 및 제3세계

(주)엠씨케이퍼블리싱	2,000,000원	김광현	200,000원		
7,812,405원	오기숙	82,510원	김민정	50,000원	
76차일상에서깨어있기	윤학수	1,000,000원	김민호	200,000원	
286,000원	이경애	8,790원	김복일	100,000원	
77차일상에서깨어있기	이경학	100,000원	김삼태	500,000원	
380,000원	이나운	50,000원	김서연	200,000원	
강은숙	100,000원	이명정	100,000원	김선남	500,000원
강임식	40,000원	이세규	1,000,000원	김선호	30,000원
권건록	2,000,000원	이순이	1,000,000원	김성남	100,000원
권서운	50,000원	이엠디알티센타(주)		김성수	105,000원
권순용	1,000,000원		1,300,000원	김성운	100,000원
김기훈	5,000,000원	이목경	100,000원	김성준, 현재	21,400원
김미옥	230,000원	이장숙	100,000원	김세진	100,000원
김미정	50,000원	이현정	1,000,000원	김속희	10,000원
김미현	132,330원	장원재	1,500,000원	김애영	12,000원
김민선	500,000원	장흥수	100,000원	김영범	40,000원
김숙희	20,000원	장희석	62,200원	김여림	1,000,000원
김영호	30,000원	전성택	100,000원	김인복	800,000원
김원섭	50,000원	전재원	5,000원	김재일	500,000원
김유민	50,000원	전평환	100,000원	김정란	200,000원
김학성	30,000원	정명화	50,000원	김지현	50,000원
노희경	4,835,000원	(주)자음과모음		김현수	50,000원
라마어린이집	50,000원		1,000,000원	김한정	500,000원
로알통상 조문상		차경순	30,000원	김홍임	117,000원
100,000원		최병오	50,000원	두영주	100,000원
마춘희	10,000원	하은이	20,000원	명선해양산업(주)	
박근	100,000원	한옥엽	10,000원		500,000원
박영옥	200,000원	해피빈	12,941,600원	문병두	송정순영가극락왕
박재완	1,000,000원	해미옥	10,000원	생	100,000원
박재우	1,802,300원	홍성관	1,000,000원	문정신	1,000,000원
박현순	200,000원	보타화	us\$100	박세원	200,000원
봉배근영가극락왕생		미국JTS	us\$3,244	박윤경	5,000,000원
100,000원				박지연	300,000원
부친 권용빈영가49재				박지영	100,000원
600,000원		필리핀 어린이 후원		박진옥	50,070원
석당래준	20,000원	배명숙	us\$7,200	박해경	10,000원
손원지	20,000원			박형진	50,000원
송대년	33,110원			박희숙	500,000원
신세라	350,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백중회향모든영가극락왕	
신한카드	430,890원	강영수	오세인영가극락왕	생	3,000,000원
안상현	150,000원	생	100,000원	백화순	60,000원
양미정	500,000원	강임식	160,000원	서창임	50,000원
양예인	70,000원	고 조형두	5,000,000원	성종호	30,000원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고유미	100,000원	손동선	30,000원
(주)		관음구제회	1,000,000	심봉주	50,000원
		원		안병주	10,000,000원
32,000원		구영희	1,500,000원	안승옥	11,000원
영기남	20,000원				

필리핀 어린이 후원

배명숙	us\$7,200	박해경	10,000원
		박형진	50,000원
		박희숙	500,000원
북한어린이 돌기		백중희함모든영가극락왕	
강연수 오재인영가극락왕		생	3,000,000원
생	100,000원	백화순	60,000원
강임식	160,000원	서창임	50,000원
고 조형두	5,000,000원	성종호	30,000원
고유미	100,000원	손동선	30,000원
권금구제회	1,000,000	심봉주	50,000원
원		안병주	10,000,000원
구영희	1,500,000원	안승옥	11,000원

북한어린이 돕기

강연수 오재인영가극락왕	생	3,000,000원	
생	100,000원	백화순	60,000원
강악식	160,000원	서창임	50,000원
조 초형두	5,000,000원	성종호	30,000원
고유미	100,000원	손동선	30,000원
관음구제회	1,000,000	심봉주	50,000원
원		안병주	10,000,000원
구영희	1,500,000원	안승옥	11,000원

문의전화 02-587-8995

양경아	100,000원	최민희	100,000원	조진용	30,000원
양미정	500,000원	최은경	50,000원	주선자	500,000원
양애선	20,000원	최재경	20,000원	최영순	200,000원
오봉열	100,000원	최정우	100,000원	최화일영가기일	
오성윤	40,000원	최정자	100,000원		500,000원
오인숙	150,000원	최현우	100,000원	홍동욱	100,000원
우경자	100,000원	최환석	100,000원		
위소열	200,000원	추현재	210,390원		
유재연	70,510원	패유기원	2,200,000원	결 핵 퇴 치	
윤영화	30,000원	하은이	70,000원	신명희	100,000원
윤정숙	300,000원	한광수	120,000원	이정민	1,000,000원
이경애	50,000원	한영일	500,000원	전경림	150,000원
이관희	200,000원	한옥주	200,000원		
이금봉	100,000원	한혜리	200,000원		
이명혜	300,000원	함양옥	1,000,000원	인도모자보건	
이상철	30,000원	허재인	100,000원	간디학교짜이집	
이상심	65,000원	홍숙이	150,000원		100,000원
이수연	50,000원	황금자	us\$7,491	경희김재승한의원	
이승한	10,000원				100,000원
이원옥	100,000원			방정자	1,000,000원
이재연	10,000원	북 한 재 건		성종호	20,000원
이점숙	26,100원	고정희	100,000원	이상철	256,100원
이점숙	100,000원	구언련	100,000원	이승규	1,000,000원
이정호	50,000원	김민정	50,000원	한정연	50,000원
이찬	10,000원	김범주	200,000원		
이충희	10,000원	김성규	200,000원		
이향순	30,000원	김순자	100,000원	아이티지진참사	
이혁재	85,000원	문언정	500,000원	김선향	20,000원
이현주	150,000원	문일근	500,000원	박종기	100,000원
이형은	37,460원	박정순	100,000원	백종49일회향	500,000
장기홍	김남순영가극력양생	박종부	1,000,000원	원	
	50,000원	박지연	200,000원	봉하숙	10,000원
장길호	100,000원	서동찬	28,550원	손동선	20,000원
장영민	300,000원	손태숙	250,000원	신세라	150,000원
장원재	1,500,000원	안광민	80,000원	신형철	100,000원
장윤해	5,000원	안미숙	30,000원	이현병	1,000,000원
장재호	50,000원	엄희택	100,000원	임보성	25,000원
장정석	200,000원	연준호	50,000원	최선숙	5,000원
장혁수	20,000원	우순점	200,000원	한덕주	149,970원
장현정	1,000,000원	이순정	100,000원		
정대후영가왕생극락		이승화	50,000원		
	500,000원	이영자	150,000원	애 광 원 지원	
정한정	50,000원	이위선	210,000원	이명화	50,000원
정해경	100,000원	이임진	50,000원	최태련	10,000원
조금연	500,000원	이호준	200,000원		
조정숙	100,000원	임춘옥	200,000원		
최덕선	50,000원	전호권	50,000원		
최동진	100,000원	정소원	30,000원		

나눔저금통 현황

2010년 08월 01일 ~ 2010년 09월 30일

→ 광주

강현자 24,620 고광봉(정읍) 56,440 김수영 38,370 김인성(봉산중) 5,180 모던문구 97,840 민경진(아옥회) 17,400 박병길(정읍) 33,540 비아중학교 9,040 월계동인디안점단점 11,200 월계동일식집도화 32,910 이상훈 39,620 이장산(정읍) 12,000 이현영,이서현 19,840 자연드림빛고을시민생협점 43,040 장성우체육 18,500 정현숙 2,000 첨단현대비비인후과 109,940

→ 대구

권우혁 16,310 김미삼 30,000 김은경 29,800 김철호 57,890 김현옥 22,080 김희자 37,290 류수민 31,530 류제영 40,610 무명 19,020 무명 21,210 무명 27,970 무명 26,140 박길태 27,410 백승하 11,130 백정숙2개 38,840 북상농협 25,510 윤경화 50,600 윤성원 41,100 윤진옥 72,600 이설비,이동운 20,800 이주영 19,110 이주현 32,010 장선옥 35,700 정미혜 31,240 정지영 29,970 차영석 32,150 황영준 26,700

→ 대전

김낙춘 33,000 김선하 118,470 김어진 29,000 김영우 17,000 김종덕 17,980 김진아 32,000 김현수 15,320 김희동 23,620 무명 18,200 민들레한의원 25,700 박현이 40,940 배성진 19,020 배성진 45,930 보부상슈퍼 37,000 뽕뽕여고 142개 903,300 (1-1반 49,060 1-3반 64,070 2-5반 74,360 2-6반 49,570 3-3반 30,000 강승주 550 고은 1,500 고은팍 1,740 고희영 45,560 고희정 100 김남희 2,000 김민정 2,000 김민주 200 김민지 4,570 김보라 8,210 김보람 990 김상배 22,400 김선하 5,890 김세움 12,430 김솔기 960 김예지 3,950 김유경 7,250 김윤경 1,850 김윤정 1,000 김은혜 11,910 김인지 2,600 김지원 200 김홍희 1,480 김효주 10,980 남유림 1,150 남현희 1,210 남효주 100 돼지 160 란영 6,620 무명 5,450 무명 32,150 무명 18,900 문경은 370 문수아 2,600 몽크 4,450 민지홍 10 박민주 120 박새안 1,070 박선 6,130 박아현 2,050 박지숙 4,570 박지영 10,100 배소연 2,070 배지원 1,700 백설희 390 백예진 60 백장미 7,880 봉봉 27,530 서민지 3,000 서지현 1,700 서진희 1,000 서채영 8,430 서평주 8,450 서희수1,880 석정옥 11,500 소희 6,830 송선영 2,760 송이 1,500 수영 1,800 신가윤 1,000 신나라

문의전화 02-587-8995

5,370 신연희 4,080 심우주 2,000 안교숙 920 오다연 700 오소정 1,000 오연아 150 유난희 3,480 유슬비 2,000 유자수 1,970 유혜리 4,650 윤재림 15,170 이교범 15,300 이도움 870 이동주 2,950 이사비나 9,270 이선형 13,000 이슬이 2,000 이송미2,020 이수경 3,240 이유경 6,710 이윤지 650 이은총 1,100 이이채 1,200 이준아 1,350 이지형 2,020 이채현 2,150 이철우 1,190 이혜민 9,580 이혜성 1,000 이현정 1,410 이혜영 2,000 임슬기 1,000 임이지 830 임지연 7,840 임한비 3,090 임현아 15,380 자슬비3,000 장문자 7,430 장수지 9,890 장예슬 3,220 전다솜 1,950 전유리 1,470 전재은 4,350 정수림 7,110 정예지 2,270 정하은 7,310 정희지 200 조다미 4,830 조수연 400 조해수 3,220 지수 1,500 지영 5,960 지윤 1,500 차유리 750 천우원 2,200 최가을 200 최민지 10,100 최선홍 440 최수연 2,150 최정윤 4,000 최지연 3,790 최초록 5,690 최현지1,040 최혜지 650 하안돼지 7,450 한다솜 4,560 한유진 1,700 한진별 3,900 허담비 5,000 허윤지 3,990 홍상희 2,270 홍지효 2,600 황소미 6,650 황수연 360 최나미 15,290 신재훈 27,220 예목한의원 25,300 오정화 20,130 우삼이 36,170 유시연 15,430 이성수 23,500 이승상 25,120 이준희 20,850 장완수 37,090 전경숙2개 32,030 조명숙 35,950 타이어오색 21,000

→ 동래

고란숙 25,720 김순정 24,760 김이숙 14,210 류진수 24,140 무명 115,620 문금숙 30,970 박윤희 49,970 박윤희 27,850 방황자 23,460 백정자 19,740 빠리장메이커리 31,640 서호성 335,190 손숙연 16,400 손예원 65,050 송임숙 36,340 예영채 31,410 예원초등학교 58,260 이성애 26,860 이수남 50,090 이장우 71,050 이정수 41,890 이정애34,340 정원철 19,530 정철상 77,710 정현우 38,340 주봉화 23,900 홍동욱 29,000

→ 마산

강진옥(삼계초등) 88,280 거제오랑초1-4 68,380 거제원마트 60,190 김경규 26,700 김삼선 29,110 김영자 17,100 남윤숙 18,710 무명 16,230 무명 12,040 무명 24,690 무명28,170 무명 7,500 무명 25,270 박연이 23,950 방글이 14,250 빵굽는집(회성동) 12,450 윤주희 26,730 이미선 39,380 이영숙(동읍) 32,600 이주윤(함안) 36,850

임정호, 김미용 30,480 코오롱사우나 44,890 한명희 22,190 한순여 14,370 황원주 36,210

→ 서울

1004 30,450 강은주 22,580 강인해 11,320 갤러리상바라 31,750 광
동근 26,500 광동제약대리점 3,960 권류경 6,700 권민혜 41,570 금
모선원 16,660 금영화 12,450 김경숙 49,330 김고은 52,600 김민강
19,290 김민서 19,550 김민지 32,450 김민하 15,590 김선아 68,560
김수학 6,840 김연송 10,850 김영호 5,240 김정규 19,400 김종학
25,310 김채연 3,520 김철한 40,000 김철한 32,910 김형규 24,100
김형빈 3,060 류동수 25,650 류혜경 46,550 무명 19,560 무명
8,720 무명 33,050 무명 26,810 무명 25,690 무명 24,630 무명
17,580 무명 27,410 무명 44,360 무명 20,290 무명 12,430 무명
29,600 무명 30,930 무명 28,400 무명 25,160 무명 25,230 무명
1,170 무명 30,320 박다솔 52,300 박동원 29,690 박미나 56,570 박
상욱 44,540 박영미 112,710 박응식 2,400 박응식 34,170 박지연
33,820 박형근 12,150 배유진 21,590 백규렬 52,520 부천부흥중
42,020 서병하 30,470 서울유유산산대리점 1,300 서원희 4,530 성은
정 14,430 손옥주 37,250 스킵사진관 18,350 신복초3-1 246,190
양성열(김명희) 18,840 오경택 35,450 오경택 211,290 우경미 13,210
우종찬 41,090 유동인 49,120 윤선아 49,560 윤옥순 31,290 이다용
13,460 이대림 21,310 이동근 19,160 이민우 14,110 이승주 19,110 이
우범 29,450 이은주 26,370 이정자 31,980 이종률 18,400 이지현
13,120 이한민 11,430 이한솔 33,760 이해원 31,600 장유준 8,690 장
채린 9,880 장혜숙 17,000 적량초3-1 39,710 전지혜 14,240 정민지
27,260 정바다 34,490 정소희 16,850 정숙 31,190 정영경 11,100 정
영숙 15,480 조민영 26,360 최보경 26,660 최예준 18,320 탐앤탐스
225,620 탐앤탐스분당지역 335,050 탐앤탐스서초강남지역 307,720
탐앤탐스홍대점 97,960 판넬 5,410 한다운 11,010 한혜란 32,610 허
지은 25,480 현순희 33,790 홍대토너모리 127,557 홍영기 55,680 환
회원 17,800 GS25 10,980 JTS 32,110

→ 울산

권형우 20,390 김경희 15,720 김영순 34,030 김은하 13,170 나이스
마트 25,690 대웅약국 34,020 무명 9,390 무명 17,500 무명 14,360

무명 51,220 무뽀나촌담 19,730 울산차량등록사무소 6,250 유종열
24,570 윤성진 4,740 장숙희 17,940 제일은행남지점 9,390 짙편의점
15,310 찰보리빵 6,020 한빛치과 7,730 한살림울산 13,850 현대하이
스코 61,000 홍순연 29,000 황지영 43,830

→ 제천

권영화 12,140 김춘자 17,950 안기숙 24,270 이병욱 82,680 이선희
3,130 이정호, 정영희 20,190 장옥예 24,710

→ 청주

김명종 39,430 김민석 20,060 박정옥 17,440 아해과학교실 16,380
이윤선 37,840 조연화 19,350 최대영 27,520 한국조명 17,580

→ 해운대

강병수 26,840 강소담 9,020 공혜경 33,780 김혜숙 31,430 무명
4,320 무명 24,670 무명 5,570 무명 27,000 무명 24,710 무명
24,470 무명 17,070 무명 43,170 무명 15,290 무명 20,660 무명
88,020 무명 21,470 무명 11,400 무명 15,190 무명 16,300 무명
28,070 무명 87,290 문원보 36,330 오경준 8,630 이관선 23,790 이
서현 30,210 이수연 10,190 이정숙 26,560 인천석암초1-3 19,190 정
상현 12,870 조복연 16,840 한혜성 22,580 홍성혜 46,810

| 거리 모금 현황 |

2010년 08월 01일 ~ 2010년 09월 30일

대구 337,030 대전 396,500 동래 414,870 마산 1,890,060
마산코오롱사우나 205,000 서울 581,818
아름다운가게홍대점 285,000 울산 88,650
울산밀양연극촌캠페인 711,280 통영한산대첩모금 1,643,720
해운대 326,940 해운대학교찾기모금 131,600
행가모금 131,000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즐거운 자원활동



비우는 삶
+ 재능, 특기
+ 시간



인터넷 접수
+ 인터뷰
+ 활동 교육



**JTS 자원 활동을
시작합니다.**

비우는 삶
내 마음을 비우면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고 내 재능, 특기, 시간으로 돕습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따뜻한 보람이 채워집니다.

해외 자원활동
장기봉사활동으로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분야 건축, 농사, 회계, 태권도, 예능교육, 의료, 언어 등

국내 자원활동
한시간 국내봉사가 아이들의 연필, 가방, 교실이 됩니다.
지원 봉사 번역, 녹취, 홈페이지 관리, 영상 제작 및 편집 등 활동 봉사 물품정리, 거리캠페인, 나눔저금통 관리 등

우리가 행복해지는 고마운 나눔회원



소박한 삶
+ 원하는 나눔
기금 선택



**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JTS 나눔 회원이
되었습니다.**

심승현 작가님의 '파페포포 레인보우'는
다음포털 만화에 연재중입니다.

소박한 삶
적게 쓰고 적게 가지는 소박한 생활로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JTS나눔 기금 02-587-8995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 어린이 돕기 결핵퇴치 모자보건 북한개발 해외긴급구조

참여하신 분들은 전화로 본인의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나눔회원이 되신 분들은 JTS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_JTS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눔
해피빈나눔 happylog.naver.com/jtstogether 에서 참여하세요
나눔저금통 작은 동전도 나누면 큰 힘이 됩니다.

투명한 기금 운영 알기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JTS재정을 공개합니다.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기금 운영과 지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JTS희망나눔미 파페와 포포입니다